

보도 일시	2022. 11. 23.(수) 09:00	배포 일시	2022. 11. 23.(수) 09:00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고희영 (044-203-2564)

## 선우예권과 랑랑, 한중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 전한다

- 11월 23일 예술의 전당에서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공연'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정길화, 이하 진흥원)과 함께 한중 수교 30주년과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해 11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클래식 공연을 열고 음악으로 우정을 나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고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해에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한 바 있다. 이에 작년부터 공식표어(슬로건)인 '문화로 나눈 우정, 미래를 여는 동행(중문: 文化增友谊, 同行创未来)'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양국 피아노 연주자들이 호흡을 맞추는 이번 공연에서도 한국과 중국은 수교 이후 30년간 쌓아온 우정을 확인하고, 마음으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선우예권-아리랑, 랑랑-모리화 등 다양한 음악 소개

이번 공연에서는 국내외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피아노 연주자 선우예권과 중국을 대표하는 피아노 연주자 중 한 명인 랑랑이 약 100분 동안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1부에서는 선우예권이 요하네스 브람스의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 클로드 드뷔시의 '판화', 모리스 라벨의 '라 발스' 등과 아리랑을 선보인다. 2부에서는 랑랑이 프레데리크 쇼팽의 '야상곡 올림다단조'와 '왈츠 내림라장조', 프란츠 리스트의 '사랑의 꿈', 클로드 드뷔시의 '달빛', 마누엘 데 파야의

‘불의 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 988’ 중 일부를 연주한다. 또한, 선우예권의 아리랑에 이어 랑랑이 중국 민요 모리화를 연주하며 한국과 중국의 우정의 밤을 수놓는다.

문체부 정향미 문화정책관은 “얼마 전 진행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간 교류, 특히 젊은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해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고, 시진핑 주석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한 바 있다.”라며,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이후에도 한중 간 교류, 특히 미래 세대 간 교류를 확대하여 문화로 나눈 우정이 미래를 여는 동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공연 포스터
- 2. 공연개요 및 출연진 소개

담당 부서 <총괄>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책임자	과장 권도연 (044-203-2561)
		담당자	사무관 고희영 (044-203-2564)
<공동>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상호문화교류팀	책임자	부장 김도연 (02-3153-1758)
		담당자	팀장 여현경 (02-3153-1783)



붙임1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공연 포스터

2021-2022  
한중 문화교류의 해

선우예권  
Seokwon  
Sunwoo

#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공연

랑랑  
Lang  
Lang

2022.11.23.(수) 7:30 PM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Commemorative Concert for the Korea-China Cultural Exchange Year an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of Korea-China diplomatic relations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회  
KOFICE

한중 문화교류의 해  
2021-2022  
中韩文化交流年

□ **공연개요**

- (공연명)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공연
- (일시/장소) 2022. 11. 23.(수), 19:30 /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 (출연진) (한국)선우예권(피아니스트), (중국)량량(피아니스트)
- (주최/주관) 문화체육관광부/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 (구성) 1부 선우예권(50'), 인터미션(20'), 2부 량량(50')

구분	공연시간	소요	프로그램	내용
개회	19:30~19:35	5'	개막 인사	한중 문화교류의 해 소개
1부	19:35~20:25	50'	선우예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ahms - 6 Klavierstücke, Op. 118 (여섯 개의 피아노 소품)</li> <li>· Debussy - Estampes, L. 100 (판화)</li> <li>· Ravel - La Valse (라 발스)</li> <li>* 아리랑(안성민/편곡)</li> </ul>
<b>인터미션 20분</b>				
2부	20:45~21:35	50'	량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hopin - Nocturne in C-Sharp Minor (야상곡 올림다단조)</li> <li>· Chopin - The Waltz in D-flat Major (왈츠 내림라장조)</li> <li>· Liszt - Liebesträume (사랑의 꿈)</li> <li>· Debussy - Clair de lune (달빛)</li> <li>· Falla - Danza Ritual del Fuego (불의 춤)</li> <li>· Bach - Goldberg Variations (골드베르크 변주곡 BWV 988 중 일부)</li> <li>* 모리화</li> </ul>
폐회	21:35~21:40	5'	폐막 인사	공연 폐막 인사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 출연진 소개

출연진	내용
	<p><b>1부 피아니스트 선우예권</b></p> <p><b>2017년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한국인 최초 우승자</b></p> <p>에너지 넘치는 황홀한 연주력으로 국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선우예권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천둥과 같은 종합적인 테크닉을 구사하는 피아니스트”(시카고 트리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뮌헨 필하모닉,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시대를 대표하는 음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p>
	<p><b>2부 피아니스트 랑랑 Lang Lang</b></p> <p><b>2011년 중국 문화부 최고상 수상</b></p> <p>동시대 클래식계의 대표주자 랑랑은 21세기 예술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피아노 연주자, 교육자 및 자선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과 같이 수십억 관객이 지켜보는 무대에서도, 불과 수백 명의 공립학교 학생들 앞에서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주에 임하는 그는 명실상부 음악을 통한 소통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p>